신안군 '농가소득 2배 올리기' 팔 걷었다

친환경 농축산 생산 기반 구축·기업형 가공산업 육성

5개 권역별 특화작목 지정…농특산물 브랜드화 추진

신안군이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예산 445억원을 반영해 주민들의 농가소득을 2배로 올리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16일 신안군에 따르면 올해 기준 농업인 인구는 3만3700여명으로, 60~70세 이상 인구(2만2059명)가 전체의 65.4%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화돼있다. 신안지역 억대 농가는 259명(북부권 74·중부권 87·서부권 30·남부권 48·압해권 20명)이다.

군은 맞춤형 고소득 농업인 육성과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농·특산물 생산 및 품질향상, 농업재해 예방을 통한 경영불안 해소, 밭작물 소형 농기계 보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억대 농가육성 맞춤형 현장 프로젝트와 자원순환형 저비용 친환경농업 확대를 추진하며 소형 저온저장고와 세척기·건조기 지원 확대, 재해대비 생태둠벙 및 재해보험 가입 확대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간다.

군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압해권·남부권·서부권·중부권·북부권 등 권역별로 농·특산물 브랜드화와 판매전략을 수립했다.

압해권(압해읍)은 도시근교 농업을 육성해 경쟁력있는 원예 소득작목 산업화로 상품성 향상과 부가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남부권(하의·신의·장산면)은 고추·마늘·블루베리·봄동을, 서부권(비금·도초·흑산면)은 시금치·세발나물·대파·고추 등 품목을 집중 육성한다.

또 중부권(안좌·팔금·암태·자은면)은 마늘·양파·콜라비·무화과·꾸지뽕을, 북부권(지도읍·증도·임자면)은 축산과 대파·양파·브로콜리 재배에 주력하게된다.

신안지역은 섬이라는 특수성때문에 물류비 증가 문제가 뒤따른다. 더욱이 권역별 물류센터가 없어 홍수출하되면 가격폭락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군은 권역별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과 가공시설 현대화로 기반을 확충하고, 품목별 출하회 조직을 육성·지원할 계획이다.

고길호 군수는 " 지역특화작목 가공식품 개발에 의한 기업형 가공산업 육성으로 소득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특화작목 향토자원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축산 명품화를 통해 FTA에 대응하고 축산농가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단순 1차산업에서 6차산업으로 경쟁력 있는 농촌경제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 신안군 권역별 대표 농·특산물

권역	지역	품목
북부권	지도·증도·임자면	대파, 양파, 브로콜리, 축산
중부권	안좌·팔금·암태·자은면	마늘, 양파, 콜라비, 무화과, 꾸지뽕
남부권	하의·신의·장산면	고추, 마늘, 블루베리, 봄동
서부권	비금·도초·흑산면	시금치, 세발나물, 대파, 고추
압해권	압해읍	원예농업

지난 12일 함평읍 오일시장내 '함평천지 한우비빔밥 거리'를 찾은 관광객과 주민들이 전통놀이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함평천지 한우비빔밥 거리' 주말마다 북적

'남도 한바퀴' 인기 관광코스 부상

함평읍 오일시장내에 위치한 '함평천지 한우비빔밥 거리'가 함평을 찾는 관광객들의 인기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함평천지 한우비빔밥 거리'는 지난 4월에 2014년도 한국관광공사 음식테마거리 관광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데 이어 지난 12일부터 금호고속에서 운영하는 '남도 한바퀴' 관광코스로 개발됐다.

매달 둘째, 네째주 주말(토·일요일)마다 운영되는 '남도 한바퀴' 관광코스는 광주 광천터미널에서 출발해 광주 송정역, 무안 항공우주박물관을 거쳐 점심시간을 맞춰 함평에 도착해 '함평천지 한우비빔밥'을 먹은 후 자연생태공원을 경유해 영광으로 이동한다.

'남도 한바퀴' 첫 운행을 한 지난 12일에는 음식테마거리 외식업소 대표와 군 문화관광해설사, 상인회, 지역주민 등이 관광객을 맞이했다. 이날 오일장 안에 설치된 무대에서는 함평색소폰 동호회 연주, 돌머리 굿판이 펼쳐졌다.

또한 음식테마거리 13개소에서는 '남도한바퀴' 승차권을 소지한 관광객들에게 한우비빔밥 가격을 10% 할인해줬다.

한 관광객은 "입소문으로만 들었던 한우 비빔밥을 직접 먹어보니 소고기 육질이 싱싱하고, 찰지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 '함평천지 한우비빔밥 거리'는 1900년초부터 함평 우(牛)시장을 중심으로 발달한 특색있는 음식거리이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전국 해양보호구역 대회

신안군 습지보호 최우수

신안군이 '세계 습지의 날'을 기념해 최근 인천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7회 전국 해양보호구역 대회'에서 최우수상(우수관리 지역)을 수상했다.

이번 경연대회는 전국 21개 지역의 습지보호 지역과 해양생태계 보호구역의 관리 정책 사례를 발표, ▲습지의 다양한 기능 ▲가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증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군은 지난 2010년에 증도 갯벌(31.3㎢)을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2011년에 국제적인 '람사르 습지'로 등록해 우수한 해양생태계를 보전· 관리하고 있다. 또한 '갯벌 도립공원' 지정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 지역' 지정 등 다양한 환경정책 추진은 물론 지역주민 인식증진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생태관광 기반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전국 갯벌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섬 갯벌의 보전·관리를 위해 갯벌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습지보호지역을 추가 확대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신안=이상선기자 sslee@

보고 만지고… 생생한 갯벌체험 교육 신안 자은초등학교(교장 안연옥) 학생과 병설 유치원생들이 16일 자은면 둔장리 해변에서 갯벌 생태체험을 하고 있다. 창의·인성체험 교육 일환으로 실시된 이날 생태체험 활동에는 학생 70여명과 학부모, 교사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신안 자은초 제공〉

무안군 민선 6기 군수공약 사업 60개 확정

타당성·재원확보 면밀 검토

무안군이 민선 6기 군수공약 사업을 최종 확정했다. 무안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사는 무안, 누구나 살고 싶은 무안, 군민 모두가 행복한 무안 만들기'를 민선 6기 군정 목표로 세우고, 이를 뒷받침할 군수공약 6개 분야 60개 사업(신규 45, 계속 15)을 최종 확정했다.

군은 김철주 군수가 선거기간에 내걸었던 모든 공약에 대해 사업별 담당부서에서 사업 타당성, 재원확보 방안,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해 60개 사업을 선정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농촌이 잘사는 행복 무안'을 만들기 위해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경운기 보험가입 ▲6차 산업형 체험마을 조성 등 신규사업을 포함한 21개의 다양한 사업이 확정됐다.

또 군 역점사업인 '해안관광 일주도로' 건설을 비롯해 ▲갯벌체험 숙박시설 설치 ▲영산강 전통뱃길 복원 ▲양파 테마파크 조성 ▲구 몽탄역사 관광지화 등 무안을 사절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10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품격 남악 신도시 생태환경 조성 ▲무안~목포간 광역교통 정보시스템 확충 등 소통과 화합을 위한 4개 사업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무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향화도 바다타워 이름 정해 주세요

영광군 21일까지 명칭 공모

영광군이 오는 10월 준공예정인 '향화도 바다매체 타워' 〈조감도〉명칭을 공모한다.

영광군은 '해양수산 발전의 등불을 밝히다'라는 컨셉으로 총사업비 100억원을 들여 염산면 옥슬리 향화도 부지면적 4234㎡에 최대 높이 111m(지하 1층·지상 3층)의 타워를 조성하고 있다. 주변에는 여객선 대합실과 활어·선어 판매장, 회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공모 참여는 오는 21일까지 전국에서 누구나 가능하다. 공모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영광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해 직접 방문이나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응모하면 된다.

군은 지역주민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지역 대표성과 이미지 상징성, 창의성, 대중성, 성실성 등을 고려해 명칭공모 당선작을 선정(최우수 1·우수 1·장려 2건)해 상품권을 수여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향화도 타워는 국도 77호선과 연결되는 칠산대교 건립과 설도 젓갈타운 건립사업과 연계해 서해안 해양수산 관광분야의 밝은 등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향화도는 과거에 갯벌로 연결된 섬이었으나 현재는 간척지로 육지와 연결돼 있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주)오천경매 / 오천개발

대표, 최선규

문의, 010-3605-5000

광주시 동구 천변우로 339, 2001호

특수물건 특수비법 만이 살 길이다!

■ 특수물건(지분, 법/지, 유치권, NPL 등등)만이 정답입니다!
■ 특수비법을 알아야 특수물건에 도전합니다!
■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투자 하십시오!
■ 오직! 특수경매만을 하실 분을 모십니다!
■ 단, 상담후 본사가 결정합니다!